



오일장에 소극장 생겼다

‘서귀포극장 홍리’ 조성
오는 17일 개관 축하 행사
문턱 낮춘 창작·발표 공간
장 없는 날 활성화 행사도



던 서귀포
의 문화 공
간들이 하
나들 문을
닫고 도심
이중섭거리

서귀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
인들을 위한 민간 소극장이 생겼
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장 인
근 창고를 리모델링한 ‘서귀포극장
홍리’ (이하 홍리, 서귀포시 중산간
동로 7894번길 18-5)다.

복합문화예술공간을 표방한 ‘홍
리’ (<https://www.facebook.com/share/1D1N6qaLSr/>)는 춤꾼 박
연술 (대표), 상어송라이터 조성일
과 김영태, 건축예술가 박규현 등 4
명이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지
역 예술가들의 연습실이자 소규모
공연장으로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
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망 때문
이다.

이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버텨 오

의 열린 공연장이었던 서귀포관광
극장마저 철거되는 현실을 짚었다.
문화 예술의 토대가 빈약한 탓에
서귀포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예술가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
다. 결심을 굳히기까지 수백 번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절실함이 더 컸
다. 그렇게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
으로 소극장 조성에 뛰어들었다.

소극장이 들어선 지역의 옛 지명
에서 이름을 딴 ‘홍리’는 서귀포에
서 창작하거나 서귀포를 찾는 예술
인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한다. 무
대가 필요한 지역 예술인들이 부담
없는 대관료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꾸려갈 계획이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하는 오일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장 인근에 들어선 ‘서귀포극장 홍리’ 전경.

홍리 제공

의 매력을 살린 연계 프로그램 개
발도 이뤄진다.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예술 오일장’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이자 음악 감
상, 공동체 영화 상영, 소모임이 가
능한 공간으로 이끈다.

‘홍리’는 4인의 예술가 외에 문
화 공간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사
람들이 힘을 보탠 끝에 오는 17일
오후 5시 ‘극장 짓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개관 축하 행사를 갖는
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와 함께 나누는 포트리
파티로 진행된다. 홍리 측은 개관

행사 이후 후원인 모집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토양을 다지기로 했다.

조성일 ‘홍리’ 기획연출팀장은 “서
귀포에는 공연 예술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민간 소극장이 없다.
앞으로 후배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상사적으로 자기 것을 풀어내고 시
민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란
다”며 “특히 오일장이 서지 않는 날
에는 텅 비는 곳이어서 상인회와 협
력해 소극장 안팎에서 활성화 프로
그램을 이어 가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회기자sunny@ihalla.com



2026 제주국제무용제 포스터. 조직위 제공

2026 제주국제무용제
12~25일 제주 곳곳서
스페셜 갈라 개막 공연
토속 음악·춤의 만남 등

제주 곳곳이 춤추는 섬으로 변한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에
술의전당 등에서 이어지는 ‘2026 제
주국제무용제 (JIDANCE)’다.

1일 사단법인 제주국제무용제 조
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
해로 4회째다. 8개국 100여 명의 무
용수들이 공공 공연장은 물론 애월
읍과 구좌읍 등에서 11개의 프로그
램을 펼친다.

개막 공연은 스페셜 갈라(12일
오후 4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
장)로 꾸민다. 독일, 네덜란드, 미
국, 일본, 한국 등 국내외 무용수들
이 제주 소재 한국무용에서 정통
클래식 발레,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
스까지 7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제주 토속 음악이 춤과 만나면’
(16일 오후 7시 비인)에서는 제주
민요, 굿 음악 등을 사용해 만든 창
작 무용 4편을 무대에 올린다. 제주
마을 댄스 캠프(18일 오후 5시, 애
월읍)는 제주를 찾은 휴양객들과
마을 주민, 제주에서 활동하는 무용
가 등이 함께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 댄스 프린지(19일, 22일 오
후 7시 비인)에선 공모를 거쳐 선
정한 5개국 8편의 작품을 공연한
다. 특히 독일 오스나뉼르크 씨어
터는 제주 해녀를 모티프로 창작한
작품을 준비했다.



제주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가 1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6 제
주국제무용제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섬비소리길 ‘길 위의 춤’
(20일 오후 6시 구좌읍 별방진 일
원)은 제주국제무용제의 차별성을
살린 장소 특정 공연. 별방진 인근
성터와 포구, 방파제 등지에서 4개
국 무용가들이 공연에 나선다.

시니어 무용 프로젝트 ‘동그래
당실’ (23일 오전 10시 비인)도 있
다. 무용가 박수현이 65세 이상 참
가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설이 있는 무용 필름 상영회
(24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
터), 협력 공연인 박수현의 ‘동백
꽃 당신’ (21일 낮 12시, 오후 7시
애월뮤직팩토리)도 열린다. 국제
무용 콩쿠르(2026 제주아시아 퍼시
픽 국제무용콩쿠르) 수상자 공연,
미래 세대 무용가들을 위한 청소년
무용 공연, 발레 워크숍도 잇따른
다. 제주국제무용제 누리집 참고.

조직위 박인자 이사장은 “제주의
전통문화가 세계 무용 예술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제
주 문화의 세계화와 동시에 세계
문화의 제주화를 이루어 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진선회기자

문화가 쏙지

▷제주도립미술관 온라인 소장품
전 ‘결의 존재’-말, 소, 개처럼 오
랜 세월 인간과 삶을 나눈 동물
소재 작품을 1일부터 ‘온라인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작품 속 동물은 인간과 분리된 대
상이 아니라 노동과 생계, 위로, 안
전한 삶을 함께 나눈 동반자다. ‘가
까운 존재’ ‘권력과 질주: 인간 문
명의 초상’ ‘집송의 눈, 인간의 눈’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제주문학학교 작가 양성 문예
창작아카데미-소설=‘우리의 트윈
하우스-7주 동안 소설 쓰기’란 제
목 아래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
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간 동안 제주문화관 3층 세미나실
에서 진행한다. 홍임정 소설가가
강의를 맡아 예비 창작자들과 창작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만들어가
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설
창작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1일부터 선착순 30명 모집.
문의 070-4115-1038.

▷탐라도서관 여름 독서교실=여

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
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
최하는 ‘2026년 전국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
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탐라도서관 강의실에서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30명이다. ‘여름, 이야기나
무 생각숲’을 주제로 그림책과 동
화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
후 활동으로 꾸린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도서관 누리집.

▷2026 제주어책놀이지도사 자
격 과정=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
하는 과정으로 제주어 교육과 독서
활동을 접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
다. 제주어 강사, 독서·책놀이·그림
책·동화구연 등 독서 관련 분야에
서 활동 중인 성인 25명을 모집해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
회 과정으로 운영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이달 3일부터. 꿈바당어린
이도서관 누리집 참고.

전통 문인화로 그린 희망
제주지원문인화회 회원전
‘오늘도 내일도 활짝’ 4~9일

‘오늘도 내일도 활짝’. 전통 문인
화의 정신을 이으려는 제주 문인화
작가들이 이런 이름을 내걸고 작품
전을 준비했다. 이달 4일부터 9일
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이어지는 제주지원문인화회의 13
번째 회원전이다.

전시 제목에서 짐작하듯 이번 회
원전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
을 잃지 않고 오늘을 아름답게 가
꾸며 밝은 내일로 나아가자는 바람
으로 마련됐다. 양원석의 ‘천년 푸
른 숲에 학의 꿈’, 강시호의 ‘선비
의 향기’, 홍선희의 ‘기쁜 소식’ 등
출품작들은 전통 문인화에 기반해
단순한 자연의 형상 묘사를 넘어
그 안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장
면들을 풀어낸다. 작가의 인품과
사유, 인고의 세월 등 정신세계가
녹아 있다.



양원석의 ‘천년 푸른 숲에 학의 꿈’.
제주지원문인화회 제공

제주지원문인화회 양원석 회장
은 “회원 개개인의 정성과 예술혼
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동호인과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위로
를 선사할 예정”이라며 “일상의 분
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예
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
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
란다”고 했다.

진선회기자

취  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송영훈

남원읍 태흥리 리민일동

태흥1리장 한대현 태흥2리장 이홍철 태흥3리장 오동현